

효자된 ADC... 국내 바이오, 기술수출 수익화 결심

〈항체·약물접합체〉

리가켄바이오 오노약품서 성과 개발 진전에 따른 추가 기술료 에임드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 1.4조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영역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에서 기술수출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본 오노약품공업으로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이전에 따른 개발 진전 마일스톤을 추가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 사항은 양사 간 계약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리가켄 바이오는 2024년 10월 오노약품공업과 ADC 신약 후보물질 'LCB97', ADC 플랫폼 'LCB78A' 등에 대한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사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자 구축한 ADC 원천 기술 '컨쥬올'을 활용한 공동 연구 계약을 맺었다.



에임드바이오 연구원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에임드바이오

이번 마일스톤 추가 수령은 해당 계약의 후속 성과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첫 마일스톤을 거뒀다. 당시 첫 번째 타겟 지정을 완료했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ADC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리가켄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어 개발 성과와 마일스톤 창출이 지속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노약품 외에도 영국파트너사 의수

다 테라퓨틱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ADC 항암제 후보물질 'LCB14' 임상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CB14는 리가켄이 의수다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이프라인으로 향후 다음 단계 임상 진입 및 마일스톤 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리가켄 바이오는 지난해 3분기에는 기술수출 매출만 364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까지 누적한 기술수출

매출 규모는 1101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수출 매출은 2022년 131억원, 2023년 128억원, 2024년 1054억 등으로 커졌다.

ADC 전문기업 에임드바이오도 연이은 기술수출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최대 1조 4000억원 규모의 ADC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선금금을 비롯해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매출 기반 로열티 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선금금과 세부 조건은 비공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혈액제제 기업 SK플라스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상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라이선스 인 옵션 행사에 따라 관련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에임드바이오는 지난해 12월 4일 코스닥 시장 상장 성공에 상장 첫날 2조8229억원의 시가총액 기록, 둘째날 시가총액 3조6697억원 돌파 등을 기록했다.

오는 1분기 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신약 전문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도 ADC를 포함한 기술사업화 모델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2019년 2월 설립 후 지난 6년간 5건의 신약개발 과제로 사업화 실적(총 계약금 159억원, 총 계약규모 7748억원)을 냈다. 이 중 ADC 과제는 2건으로 각각 국내 제약사 GC녹십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롯데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GC녹십자는 카나프테라퓨틱스가 보유한 ADC 기술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는 ADC 핵심 요소인 '링커' 관련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 측은 "조기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입증해 왔다"며 "차세대 ADC 치료제,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등 고형암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새해 운동 결심 돕는 '식단관리' 제품 쏟아져

정식품 섭취 간편한 '프로틴밀' CJ제일제당 당 낮춘 '닭가슴살' SPC삼립 건강한 식단 '마녀스프' 청정원 완성도 높인 '훈제메추리알'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단기 다이어트에 그치지 않고, 식단·운동·생활습관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의 건강 관리 역량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식품 소비 패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은 병원 치료 중심의 사후 관리보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헬스케어(Self Healthcare)'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고물가·고령화·1인 가구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과도 맞물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프로틴밀, 더 건강한 저당 닭가슴살, 마녀스프, 고소한 훈제 메추리알

/각사 제공

린다. 외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 균형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식품은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을 동시에 고려한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 2종을 통해 기능성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제품은 운동 후 회복과 일상 속 영양 보충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한 팩(250ml) 기준 동·식물성 혼합 단백질 20g과 함께 B

CAA,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했으며, 당류는 1g으로 낮췄다.

CJ제일제당은 단백질 식품 소비가 '의무적 섭취'에서 '일상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The더 건강한 저당 닭가슴살'은 저당 설계와 함께 소스를 적용해 맛 경쟁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SPC삼립의 웰니스 브랜드 '피그인 더가든'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마녀스프' 트렌드를 간편식 형태로 구현했다.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식단으로 주목받은 마녀스프를 가정간편식(HMR)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대상 청정원은 간식 시장에서도 '고단백·간편 섭취' 트렌드에 주목했다. '고소한 훈제메추리알'은 실온 보관이 가능해 휴대성을 높였고, 훈연 공정을 통해 간식으로서의 맛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식품·화장품 속 나노입자, 태아 뇌에 영향

韓생명공학연구원 이미옥 박사 연구팀 중뇌,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부위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물질이 실제로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나노물질이 태아에 전달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뇌 구조와 발달 과정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 연구센터 이미옥 박사 연구팀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이향에 박사팀과 공동으로 인간 줄기세포 유래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기존 동물·세포 실험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인간 뇌 발달 초기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리카 나노입자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실제 장기의 구조와 발달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몸의 움직임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중뇌가 도파민 신경세포가 자라

며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부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뇌 오가노이드가 자라는 초기 단계에 실리카 나노입자를 노출한 결과, 세포가 대량으로 죽거나 사라지는 등 외형적으로 뚜렷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뇌의 바탕이 되는 세포들의 증식이 줄어들고 도파민 신경세포로 자라는 과정이 약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신경세포 간 소통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그 결과 신경세포들이 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이와 함께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되면서 염증과 관련된 신호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러한 변화들은 즉각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 발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강력한 톤업 효과 'PDRN-나이아10' 출시

프리메라 흔적 잡티 2.4% 개선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PDRN-나이아10' 제품군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초저분자 PDRN과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 10%를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PDRN-나이아10 토닝 글로우 세럼(사진)'은 잡티는 지워주고 물광은 채워주는 제품이다. 모공보다 약 1400배 작은 프리메라만의 초저분자 PDRN을 함



유해 피부 속부터 관리해 준다. 인체적용시험에서 2주 사용 후 진한 흔적잡티가 2.4% 개선됐고 피부 투명도와 피부 톤 균일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PDRN-나이아10 세럼 메가 샷 겔마스크'는 주요 성분을 세럼 한 병 수준으로 함유한다. 특히 해당 성분을 지지체나 불순물 없이 그대로 굳혀 만들었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병역지정업체 선정

에이피알이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6년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에 근거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병역의무자는 군 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해당 지정업체는 연구개발 역량, 연구 환경, 전문연구요원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청하 기자

혈압 측정 반지 '카트' 유럽인증 획득

스카이랩스 글로벌 진출 박차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플랫폼(사진)'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규정인 CE-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광용적맥파(PPG) 감지 기능이 탑재된 반지형 의료기기, 모바일 앱, 의료진용 웹 뷰어 등으로 구성된 '카트 플랫폼' 전반에 적용됐다.

카트 플랫폼은 혈압, 불규칙한 맥파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데 쓰인다.

환자가 반지형 의료기기를 착용하면 생체신호

가 측정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고 의료진은 웹 기반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커프 방식으로 24시간 혈압을 측정했던 불편한 검사 방식을 보완하고 환자 착용 편의성을 개선해 혈압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는다.

/이청하 기자